

보도시점 2026. 7. 6.(월) 14:30 / 배포 2026. 7. 6.(월) 08:30

공정위, LG 그룹과 함께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 상생결제 확대 등 대금 지급 조건 개선,
2차 이하 협력사 금융(900억 원)·복지 등 지원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7월 6일(월)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 그룹 7개 계열사*(이하 ‘LG’) 및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LG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하였다.

*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이번 상생협약은 LG의 상생협력 노력의 성과가 1차 협력사에만 머물지 않고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삼성, SK 그룹에 이어 대기업집단 중 세 번째로 체결하는 것이다.

< LG 그룹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요 >

- 일시 : 2026. 7. 6.(월) 13:50 ~ 15:00 (약 70분)
- 장소 : LG사이언스파크 ISC동 5층 컨버전스홀(서울시 강서구 소재)
- 참석자 : 약 170명
(공정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기업협력정책관, 대변인 등
(기업측) LG 7개 계열사,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임직원 등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은 크게 ▲LG 및 1·2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 조건 개선, ▲LG의 1·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복지 등 상생협력 지원 확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LG와 협력사 간 자율적인 협의로 마련된 것이다.

첫째로, LG와 1·2차 협력사들은 자신과 거래 관계에 있는 그 이하 협력사에 대해서 보다 개선된 대금 지급 조건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대금 수령 시기와 방법은 중소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영과 안정적인 경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임을 감안한 것이다.

LG는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매월 3회 이상 마감을 운영하고, 마감 후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현금성 결제 비율 100%를 준수하고, 상생결제 방식의 대금 지급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LG는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상생결제로 지급한 대금이 2차 협력사까지 전달되는 비율을 뜻하는 이른바 ‘상생결제 낙수율’을 10% 이상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상생결제 낙수율의 상승은 대기업이 지급한 대금을 2차 이하 협력사가 대금을 낮은 비용으로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음을 의미

1·2차 협력사들도 그 이하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결제기일 단축, 현금성 결제 비율 확대, 상생결제 방식 대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동시에 LG는 이에 성실히 참여하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자체 지원책*(이하 ‘인센티브’)을 마련·지원함으로써, 협력사들이 대금 지급 조건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독려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중소 1·2차 협력사들이 대금 지급 조건 개선에 동참함으로써, LG의 대금 지급 조건 개선 혜택이 2차 이하 영세 협력사까지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협력사 평가 시 가점 부여, 금융 지원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 우대 등

둘째로, LG는 1차 협력사에 더하여 2·3차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금융·복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는 한편, 협력사와의 공정거래 기반도 더욱 튼튼히 구축하기로 하였다.

LG는 이번 상생협약을 계기로 현재 협력사 대상 무이자 대출 등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동반성장펀드 총 9,000억 원 중 10%인 900억 원 이상을 2차 이하 협력사를 대상으로 새롭게 지원하기로 하였고, 임직원 복지몰 가입 대상도 2차 이하 협력사 임직원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상생협약에 참여하는 7개 계열사 모두에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를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LG 공급망에 속해 있는 약 1,300여개 협력사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LG는 이번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을 내년 초 체결 예정인 협력사들과의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하여 상생 협력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체가 불공정행위 예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협약이라는 형식으로 1년 단위로 약정·이행하고, 공정위가 그 결과를 평가하는 제도

주병기 위원장은 “대기업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도 협력사들과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 위에서 완성된다” 고 언급하면서, “LG에서 시작해 1차, 2차, 3차 협력사로 고르게 퍼져나가는 따뜻한 상생의 문화가 깊게 뿌리내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 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을 통해 이번 상생협약이 성실히 이행되는지를 면밀히 살펴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대기업과 협력사 사이의 바람직한 상생협력 문화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수 있도록 대기업 - 협력사 간 상생협약 체결을 지속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 대상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등

<붙임1> 공정거래위원장 말씀자료

<붙임2> LG 그룹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서(별첨)

담당 부서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선희 (044-200-4945)
		담당자	사무관	강대준 (044-200-4946)



LG 그룹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2026. 7. 6.(월) 13:50



공정거래위원회

말씀자료

- 일시 : 2026. 7. 6.(월) 13:50
- 장소 : LG사이언스파크 ISC동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LG 그룹 경영진과 협력사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축하해 주시는 내외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입니다.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요람인 이 곳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그룹 공급망 전체의 포용적 성장을 선포하는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확실성 국면 속에서도
7개 핵심 계열사와 뜻을 모아
1,300여 협력사를 아우르는
상생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주신
LG 그룹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묵묵한 땀방울로
우리 산업의 허리를 받쳐주고 계신

협력사 대표님들께도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모습에 대한 생각은
다양해 보입니다.

흔히들 모든 기업이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시장을 공정한 시장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가치이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정한 시장은 다양한 기업들이
저마다의 역량을 자유롭게 발휘하여
다 같이 성장함으로써,
생태계 전체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시장이어야 합니다.

선도 기업은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중견 기업은 새로운 기술을 축적하며,
중소 기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산업의 저변을 넓혀갈 때
우리 경제는 비로소 지속적인 혁신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이
마치 쇠빙선과 같이
글로벌 시장으로의 항해를 선도해 나가는 것은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협력사들과 함께 성장하지 못한다면,
산업 생태계 전반의 활력은 점차 약해질 수 밖에 없고,
힘찬 항해를 위한 동력 역시 줄어들 것입니다.
결국, 대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성장도
건강한 산업 생태계 위에서 완성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체결되는
LG 그룹과 협력사 간 상생협약은

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상생협약이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급망의 최정점에 위치한

LG의 주도적 결단과

연속성 있는 실천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협상력이 부족한 경제적 약자들의 권익은

결국 대기업의 책임감 있는 리더십이 마중물이 되어야

충분히 보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LG가 먼저 1차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월 3회 이상 마감을 운영하고,

마감 후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다른 대기업에도 훌륭한 귀감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LG가 1차 협력사에 지급한 대금이

2차 협력사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하기로 선언한 점도 고무적입니다.

이에 더하여,

LG가 2차 이하 협력사를 대상으로

새롭게 약 9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행하고,

대기업 임직원만 누리던 복지몰 혜택을

협력사 직원들에게까지 개방하기로 한 것은

자칫 소외될 수 있는 협력사, 더 나아가 그 임직원까지

포용할 수 있는 인상 깊은 조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LG와 협력사들이

뜻을 모아 나아가는 담대한 상생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산업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불공정한 거래 관행과 반칙행위는 엄정하게 바로잡되,

기업들이 오롯이 기술과 품질, 혁신으로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의 상생협약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면밀히 살피고
이를 적극 준수하는 모범 기업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LG에서 시작해,
1차, 2차, 3차 협력사로 고르게 퍼져나가는
따뜻한 상생의 문화가
깊게 뿌리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